



방송장비의 미래, IP에서 답을 찾다

강철희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최근 방송시장의 패러다임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IP비디오라는 쓰나미가 몰려올 엄청난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우선 IP 망과의 융합으로 인한 방송장비 인프라 변화가 그것이다. 방송장비는 크게 콘텐츠 제작, 관리, 전송 장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콘텐츠 관리장비는 IP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이 상용화되고 있고, 전송장비 역시 최근 차세대 전송표준의 도입으로 전송장비의 IP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작 장비는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기존 SDI 장비를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IP 장비로의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IP기술은 방송장비 관련 글로벌 선도그룹 간 표준경쟁으로 IP 장비 간 상호운용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무압축 비디오신호가 IP로 전송되기 위해서는 전송 딜레이 및 화질열화를 먼저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IP 제작 장비가 그동안 시장에서 확산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

린 IBC 전시회는 이미 IP가 방송 산업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IP Invasion'이라는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와 IP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략은 공감을 얻기에 충분했다. 또한, AXON 기술총괄(CTO) Peter Schut는 네트워크 플랫폼 관점에서 생방송을 위한 미래의 방송망은 IP가 될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유럽방송연합체인 EBU는 IP 제작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인터페이스를 SDI에서 IP 기반으로 순차적 전환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방송장비 선도그룹 역시 차세대 방송기술로 IP를 주목하며, 다양한 상용화 제품을 출품하였다. 특히 VRT(벨기에 방송사), EBU, 글로벌 방송장비업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구성한 'IP Interoperability Zone'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스튜디오, 조종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오픈 규격을 사용하여, 수준 높은 상호운용성을 보여 주었고, IP 기반 제작의 장점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는 전 세계 방송관계자에게 IP 장비 간 상

